



전통지식
곰솔

고기잡이 나간 남편을 기다리던 곳의 곰솔

		
지정번호	부산-2-9-1	부산시 해운대구
지정년도	1980	중동 594-1
관리기관	부산	35° 09' 37.77" N
수령	310년	129° 11' 27.95" E
수고	14m, 10m	
흉고둘레	3.2m, 2.7m	

당산나무(당산목)이면서 '망부송'으로 부르는 보호수(부산-2-9-1) 곰솔(해송)은 청사포 해안도로에서 경로당으로 향하는 곳의 길목 언덕배기에 자라고 있다. 표지판 및 여러 자료는 소나무로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 자라는 것은 곰솔이다. 곰솔의 나이는 310년으로 추정된다. 2그루 중 하나의 나무높이는 14m, 가슴높이둘레 320cm 정도이다. 다른 하나는 나무높이가 10m, 가슴높이둘레가 27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4m 정도에서 2갈래로 크게 갈라진 후 다시 가지 줄기를 내어 옆으로 넓게 퍼져 있다. 바닷가와 가까운 곳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깨끗하게 자라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망부송'과 관련이 있다. 옛날에 청사포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고기잡이가 생업이었다. 남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간 후 마을에 남은 아낙네와 가족들은 이들을 걱정하면서 마을 어귀에 있는 바위 위에 걸터앉아 남자들을 기다렸다. 그 당시 같은 동네에 살다가 혼인한 정씨와 임씨 부부는 남달리 금실이 좋았다. 평생을 어업으로 생활하는 이들 부부는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가면 부인은 바위 위에 앉아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고기잡이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기다리다 지친 어부의 부인이 곰솔 두 그루를 심고 그 나무에 의지하여 바다를 바라보았으나 수년을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바닷물을 가르고 푸른 구렁이(용왕)가 부인 앞에 나타나 물길을 인도하여 남편과 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 또 다른 이야기도 비슷하다. 정씨 부인이 바위 위에 앉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다리다가 더 멀리 먼바다를 보기 위하여 곰솔 위에 올라가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끝내 돌아오지 않는 지아비를 기다리다 지쳐 죽었다. 그래서 앉아 기다렸던 바위를 '망부석'이라 하며, 올라가 바라보던 곰솔을 '망부송'이라 부른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사당을 지어 외롭게 죽어 간 부부의 혼을 위로하였고, 이 곰솔을 어촌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해마다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하여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 소나무에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다.